

브라질 AFA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난 5월 27일에서 29일까지 AFA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풀려서인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캔디 57명에 팀멤버 83명 그리고 어린이 20여명이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원엔 준비한 모든 것이 부족해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첫 시간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는 강물과 같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캔디들이 마음을 열어서 기도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셔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캔디들이 많았고 현지 목사들이 너무 감격한 나머지 AFA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찾아와서 간증을 하는 등 하나님께서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부족했던 과정들 속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채우는 팀멤버들이 있었고 이를 보며 수많은 캔디들이 다음에 자신들도 팀멤버로 섬기로 오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AFA를 마친 후에도 자신들이 드린 기도들이 응답이 되었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AFA는 훈련원을 통하여 김 광신 목사님께 배운 값진 저의 사역입니다. 후방에서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브라질에서 한 인승 선교사 드림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 CT 촬영 결과 아무 장기에도 전이가 되지 않았고 암세포는 2mm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처럼 수술, 항암치료 받지 않고 주님께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9월에 다시 CT촬영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2. 터키 양창모 선교사-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터키 최지섭 이해영 선교사- 이해영 선교사님은 암에서 많이 치유되었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아르헨티나 강지애 선교사- 강선교사는 4월에 전절제 수술했고 지금은 방사선치료와 표적치료제 주입, 재활치료 등을 병행 중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14번 남았고 표적치료 주입은 3주에 한번씩 앞으로 12번 남았습니다. 왼쪽팔과 피부 통증으로 숙면을 못하고 있어 기도 중입니다.
5. 강명철 선교사 - 우울증이 좋아져서 약을 끊게 하시옵소서
6. 네팔 이승배 선교사 - 전립선 암 재발로 인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파푸아뉴기니 남영미 선교사 - 남영미 선교님께서 갑상선 암으로 갑상선 완전 절제 후 호르몬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고산지대와 열대 지역 온도로 인하여 체온 조절이 힘들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약으로 제어가 힘든 상황입니다. 선교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러시아 최성목 선교사 - 중풍으로 인해 오른쪽 뒷목이 당기고 아파서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하며 혼자 일어나거나 식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9. 탄자니아 여이주 선교사 - 간경변, 간경화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10. 베트남 이원재 선교사 - 아내분이신 장창선 선교사님께서 위암 1기와 자궁근종을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였습니다. 현재 회복중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2년 6월 26일

선교사 현황

53개국 321명

자체파송 74%

우크라이나 소식 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뱀 구입을 위해서 2주간 독일에 다녀오느라, 2주 만에 빵과 식료품들을 잔뜩 가지고 나누는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마을 주민들이 무척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어제는 두 지역에 300명에게 전도지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왔습니다. 마음과 물질적인 것들이 망가지고 가난하고, 피폐해진 마음에 복음으로 예수만 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를 초대했던 루바 자매가 오늘도 점심을 준비해 놓고, 우리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고 교제하면서 사도행전 16:14 절의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처럼 루바 자매가 떠올랐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주춧돌이 될 동역자로 세워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러시아 군인들이 점령했었던 이르뵘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이르뵘은 끼이브 지역에서 북쪽에 위치한 벨라루스 가까운 지역,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은 곳인데, 이곳에서의 사역은 처음입니다. 되도록 이르뵘의 중심 도시보다는 작은 마을에 가서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리 오후 12시에 소식을 주고 갔더니, 이미 약속 장소에는 20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식료품 행복 나누기 봉투에 전도지와 쪽 복음을 함께 넣어드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접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살아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향한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다음주에는 또 다른 이르뵘 두 곳을 약속하고 왔으며, 이르뵘에 루비아양가 지역 책임자와 아들도 길에서 함께 머리 숙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빵 600개를 공장에서 구입하고, 필요한 식품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집에 돌아 오는 길에 운전은 피곤하여 졸음을 쫓으며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오지만, 사역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느끼고, 모두가 기쁨으로 피곤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입니다. 하루 속히 전쟁이 끝나고 안정을 되찾아야 하는데, 오늘 들은 소식으로는 남쪽 마리오폴 도시는 여전히 물과 전기도 없는 가운데 콜레라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죽은 시체들을 아직도 매장하지 못해서 썩고 있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허가 되어 있다는 소식에 맘이 조려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안타까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이 땅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낫시! 주님!

우크라이나에서 김교역 김주순 선교사 올림

이스라엘에서 기도제목 올립니다

1. 대학청년 홍그룹과 중국어 홍그룹, 히브리어 홍그룹을 통해 새생명이 태어나고 더욱 주님을 닮아 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로 살게 하소서.
2. 온 가족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3.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 교제하고 있는 갈렙, 다프나, 리아나, 야코프가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4. 세멘사쏰(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에 새롭게 세워진 리더십들(저를 포함하여)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게 하소서.
5. 여름동안 (8/15-22) 오는 단기선교팀이 부르심따라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시고, 저희 가정의 지혜롭고 건강하게 섬기게 하소서.

- 이스라엘에서 ㄹOO 선교사 올림

광 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1-714-446-6200
gkcgmiusa@gmail.com
www.gmimission.org

할렐루야 멕시코 소식 전합니다

샬롬! 은혜 중에 안녕하십니까? 펜데믹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영혼 사랑하심과 선교의 열정으로 기도해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멕시코의 코로나바이러스 상황도 조금은 호전되어서 교회사역과 신학교사역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1억 3천만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 내용과 사진들과 기도제목들을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멕시코 1억 3천만 영혼을 위한 주요사역)

1. 산타페 교회의 목회사역을 중심한 멕시코 노회내 교회들을 순회하며 복음전파
2. 신학교 사역으로 교역자 양성, 장학사역, 구제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



< 기도제목 >

1. 많은 장애물(치안불안, 펜데믹, 물가상승, 각종 질병과 방해물)들을 이기며 담대히 복음만을 전파하도록
2. 호텔로 사무디, 에루구인 시메루만, 빅토르 피네다 목사님 등과 한 지체처럼 협력사역이 잘 이루어져서 교회들마다 부흥하며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3. 다가오는 2023년 9월에 “까미노 신학교”(주님의 길 신학교)를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 종교청과 문교부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 10여가지 서류 준비가 잘 되도록
 -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구입(2,000권 목표, 현재 103권 구입됨 ;5월말 현재) 이 이루어 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나라 멕시코에서 임한곤, 이길선 선교사 올림

인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늘 아버지 곁으로 가신 사랑의 김광식 목사님이 사신 것처럼 선교하며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한 번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

1. 새로운 비자를 얻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도 비자법이 상당히 까다로와졌습니다. 특별히 사업주비자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나아져서 인도로 오가는 길은 자유로운데 이제는 비자로 발걸음을 늦추는 시간인가봅니다. 비자서류가 잘 접수되고 비자를 받고 속히 인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2. 7월부터 새학기를 맞아 강의와 음악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데 비자문제로 7월말에나 인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케줄 조정이 잘 되고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3. 선교의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인도에서 L O O 선교사 올림

몽족 소식과 기도제목 입니다

기도와 후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 6주간 진행되는 VBS를 위해서 (6월27-8월4일)
2. VBS 오시는 선교팀과 안전을 위해서
3. VBS 준비와 몽족TV와 광고 및 인터뷰 진행을 위해서
4. 선교센터 마무리 화장실과 샤워장 수리를 위해서
5. 가정의 건강과 자비량 선교를 위해서

- 몽족에서 황인주 선교사 올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과테말라에서 소식 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아름다운 초록의 계절 6월입니다. 과테말라는 6월부터 우기로 접어들면서 비가 많이 와서 덥지 않고 선선해서 오히려 사역하기에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많이 호전되어서 저희는 다시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류마치스 관절염으로 힘들어하는 저의 아내 최재숙 선교사의 연약한 몸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GMI 과테말라 신학교)

지난 2월부터 개원한 GMI 과테말라 신학교가 한달에 한번씩 대면강의와 Zoom강의로 진행되면서 19명의 신학생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잘 훈련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6월 6일부터 11일까지 2022년 과테말라 신학교 네번째 강의로 히브리서 강해(강사 조원재 목사)가 대면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신학생들이 영적으로 크게 도전받고,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넘쳤던 귀한 강의였습니다. 7월말에 “신부의 영성: 아가서 강해”(강사 홍석구 장로님)와, 8월 중순에 “십자가의 비밀”(강사 이서 목사님)이 신학교 과목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적 교회 연합사역 : IUM)

그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주춤하고 있던 “세계선교를 위한 중미 6개국 교회 연합사역(IUM)”이 다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4,5월에 두차례 옆 나라인 엘살바도르를 방문해서 컨퍼런스를 열었고 그 곳 목회자들과 GMI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충분히 공유했습니다. 특별히 7월 12일-15일까지 GMI 선교팀장이신 안영식 목사님을 초청, 엘살바도르에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3개국의 목회자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GMI 중미 6개국 선교적 교회연합 사역에 대한 비전들을 나눌뿐만 아니라, 중미 교회들이 마지막 때 선교사명의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변화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입니다. 이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해주시요.

(과테말라 은혜교회: La Gracia)

6년 전에 개척한 케잘테낭고 은혜교회가 괄목할만한 속도로 크게 부흥하고 있으며 작년에 개척한 과테말라 시티 은혜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전도활동을 통해 한 가정씩 성도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음달에는 과테말라 은혜교회 제 3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라스 팔마스(Las Palmas)라는 조그만 지방도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몇몇 목사들과 지방도시에 은혜교회를 세우는 문제를 의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과테말라 전 지역마다 La Gracia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최근에 신학교가 시작되고 중미 교회 연합사역의 장이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미국가들의 교회들이 우리 GMI의 영성을 본받아 선교하는 교회들로 변화하는데에 GMI 과테말라를 강력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세가지 중점사역(중미교회연합,신학교,과테말라은혜교회 개척성장)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역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9년전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곳 과테말라에 늦각이 선교사로 나와 무엇을 어떻게 사역을 해야할 지 모르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 가듯 기쁘고 힘이 솟습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중보와 후원으로 도와주시는 동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만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음성 듣는 겸허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기도제목 >

1.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 충만하도록
2. 부족한 GMI 과테말라 사역 재정이 채워지도록
3. 과테말라시티/케잘테낭고 은혜교회(라 그라시아)의 부흥을 위하여
4. GMI과테말라 신학교와 IUM 사역에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있도록
5. GMI 과테말라 선교센터 건립을 위하여

- 과테말라 최용준, 최재숙 선교사